

濟州道 舊石器文化의 檢討

고 재 원*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구석기유적의 부존 가능성 |
| II. 제주도의 형성 | V. 맺음말 |
| III. 구석기 유적의 검토 | |

I.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 구석기유적과 연구물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제주도 구석기시대 유적의 존재는 1973년 중기구석기시대의 빌레못동굴유적을 발견함으로써 처음 알려졌으며¹⁾, 1975년 후기구석기시대의 천지연유적이 확인된 바 있다²⁾. 하지만 최근 구석기연구 논문에서 천지연유적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아울러 빌레못동굴유적 조차도 국사교과서에서 빠지는가 하면, 연구논문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정식 조사보고서가 발간되지 못하고, 일부 논문으로 발표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유물에 대한 정확한 기재,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탓도 있다. 하루빨리 구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정식보고서가 출간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유적에 대한 재검토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연구원

1) 鄭永和, 1974, 舊石器時代의 穴居遺蹟에 대하여, 『韓國文化人類學』 6, pp. 151-156.

2) 鄭永和, 1977, 濟州道の 考古學的 調査 : 新發見 遺蹟을 中心으로, 『韓國文化人類學』 9, pp.131-136.

II. 제주도의 형성

수억년전(선캄브리아~고생대)에 제주도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한국 본토인 한반도에는 지질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7-8천만년전에서 2천만년전(중생대말~신생대 제3기 마이오세)에 제주도는 아마도 한국 본토와 연결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증거는 제주도에서 심부 온천 개발중에 발견된 심부시추코아에서 화강암(granite)과 응회암(tuff)의 산출에서 알수 있다. 이는 그 시대가 중생대 말기의 불국사화강암과 한국 남해안 도서의 신생대 신제3계 화산응회암과 같은 시대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후 신생대 제3기 마이오세에서 플라이오세(수천만년~수백만년)에 들어서 제주도의 기반지질 형성은 가까운 일본 남서부지방의 큐슈와 서남 혼슈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화산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시대 말기에 고제주화산체인 응회암이 폭넓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플라이오세(500만년~200만년)에서 부터 서귀포층이 형성된 100만년 전후의 플라이스토세 초기까지 제주도 주변은 빙하성 해수면변동에 의해 주기적인 해침을 받았다. 즉, 고제주화산체 상에서 화산회를 주체로 한 해양성 미고결퇴적층인 일명 '세화리층'이 제주도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폭넓게 퇴적되었다.

한편 제주화산활동의 기반화산암은 서귀포와 모슬포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지역에서부터 형성되었다. 이들 화산암에 대한 연대측정 결과는 아직 없으나 층서설정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기반화산암 상에서 연속적인 해침에 의해 천해성 퇴적층인 '서귀포층'이 만들어졌으며 그 배후에는 화산활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이는 서귀포층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주로 현무암편과 화산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추정 가능한 사실이다.

100만년에서 70만년전에 서귀포층을 부정합으로 덮는 산방산조면암군이 제주도 남서부 일원에서 분출하였다. 이 용암들은 산방산, 범섬, 문섬, 쇠섬 등으로 현재에도 육상에서 관찰할 수 있다. 70만년에서 30만년전인 플라이스토세 중기에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일어난 화산활동은 제주도를 비로소 완벽한 대지상의 섬으로 만들었으며, 이들 화산암류(서귀포 하와이아이트, 표선리 현무암)는 제주도에서 가장 넓은 지표지질을 구성하고 있다. 이때서야 제주도는 연속적인 화산활동에 의해 비로소 하나의 섬으로 독립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30만년에서 10만년전의 화산활동은 주로 한라산 고지대에서 한라산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한라산 현무암류와 영실 조면암을 분출하였다. 10만년에서 2만5천년전인 플라이스토세 후기에 백록담조면암과 중산간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기생화산(오름)이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 기생화산활동은 송악산에서는 수증화산폭발에 의한 퇴적층 형성 중에 새발자국화석을 산출, 우도의 쇠머리 오름에서는 갈대화석과 생물흔적화석이 산출된 바 있어 해안선과 바닷속에서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화산활동의 전성기는 50만년에서 30만년전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수만년에서 역사시대인 최근(서기 1002년, 1007년)까지도 화산활동은 계속되어 왔다.³⁾

Ⅲ. 구석기 유적의 검토

1) 빌레못동굴 유적

(1) 위치 및 지질

이 유적은 행정구역상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2리 70번지 일대로 천연기념물 제34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어음2리 마을에서 동남쪽으로 포장도로를 따라 3km가량 떨어져 있으며, 동굴입구 주변에 ‘빌레못’이라고 하는 조그만 연못이 있다. 해안과는 6.5km가량 떨어져 있으며, 해발 255m의 중산간지대에 속한다. 동굴의 양쪽에는 건천인 어음천과 금성천이 형성되어 있으며, 동굴 남동쪽에는 발이오름(해발 637m), 남쪽에는 새별오름(해발 519m)이 형성되어 있다.

빌레못동굴은 발이오름에서 분출된 시흥리현무암류가 순상화산체의 완만한 사면을 따라 어음리부근까지 서북방향으로 유출하였으며, 이 용암류가 빌레못용암터널을 형성하였다. 동굴용암의 암석은 감람석현무암이다⁴⁾. 동굴은 미로굴이라 불릴 만큼 亂網狀을 이루고 있다. 동굴은 주굴, 미로굴, 삼선굴로 이루어져 있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현재의 동굴입구에서 900m가량 들어간 지점이며, 삼선굴에 위치한다. 삼선굴은 지굴과 미로굴사이에 주굴과 나란히 길게 발달되어 있는데, 주굴과 2개의 지굴로 구성된다. 2개의 지굴 중 한 개의 지굴(길이

3) 강순석, 1999, 제주도의 지형과 지질, 『천미천』, 한라일보사.

4) 濟州道, 1989, 『빌레못洞窟 學術調査 報告書』, pp.37-59.



빌레못동굴유적 입구

102m, 높이 1.2m, 너비 4.5m)에서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이 지굴은 빌레못 주굴의 상단부에서 직교하며 주굴과 연결된다. 이 지굴의 중간 분기점에 있는 넓은 이층 공동에서 유적이 확인되었다5).

(2) 층위

표토층은 직경이 30cm정도 되는 현무암 덩어리들이 깔려 있고 두께가 30~50cm가량 된다. 그 다음 제1문화층의 윗부분에서는 동물화석들이 발견되며 타제석기도 출토된다. 두께는 2~95cm의 변화를 보이며 고운 진흙과 잔돌, 때로는 직경이 20cm가 넘는 큰 돌도 섞여 있는 층이다. 제2문화층은 직경 10cm 미만의 잔돌과 고운 진흙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상층의 압력으로 비교적 단단한 상태이다. 이 층에서는 타제석기만 출토되며 바닥부분은 동굴의 암반과 접촉되어 있다6).

이상의 층위 설명에 제2문화층(최하층)의 경우 퇴적물인 고운 진흙과 암석들은 동굴외부에서 유입된 지하수의 영향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제1문화층도 이러한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동굴내부의 낙석과 동굴외부의 유수에 의해 각이 있는 암석(용암괴), 혹은 무딘 암석들과 진흙(실트)이 혼재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3) 출토유물

① 석기

빌레못동굴에서 출토된 석기는 보고자에 의하면 대형석기와 박편석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대형석기는 뽕족찍개 3점, 박편도끼 4점이 확인되고, 박편석기는 굵개 26개, 칼 12개, 찜기 2개, 송곳 1개, 부리형석기 1개, 홈날 2개, 톱니날 1개씩 확인되었다. 이외에 박편 49개, 돌날 2개, 돌핵 2개가 함께 수집되어 모두 105점이 발견되었다. 층위상 1문화층에서 71점, 2문화층에서 34점이

5) 濟州道, 1989, 『빌레못洞窟 學術調査 報告書』, pp. 66-80.

6) 鄭永和 1984, 濟州道研究의 現況과 展望-考古學的 側面, 『耽羅文化』 3, 耽羅文化研究所, p. 18.

수집되었다.

- 대형석기

뾰족찍개는 현무암제로 손잡는 부분이 적당한 크기이며 석기의 끝은 뾰족한 편이다. 이 부분의 단면은 사각형·삼각형·부정형 등으로 나타나며 석기의 끝 부분과 손잡이부분은 손질한 흔적이 있다. 석기의 크기는 길이 11.1~12.0cm, 폭 7.1~8.7cm, 두께 5.7~8.0cm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박편도끼는 현무암제로 큰 박편을 손질하여 만들었으며 공통적인 특징은 석기의 끝에 도끼날이 형성되어 있어 기능적으로 손에 쥐고 도끼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석기의 크기는 길이 10.2~12.5cm, 폭 9.4~11.5cm, 두께 3.2~5.8cm에 해당한다.

- 박편석기

꺽개는 충돌타격법이나 망치돌로 쳐서 떨어져 나온 박편들을 이용하였는데 2차가공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는 무딘 부분을 그대로 이용한 것도 있다. 석기의 크기는 길이 4.5~8.2cm, 폭 5.1~12.5cm, 두께 1.5~4.7cm에 해당하고 1문화층에서 21개, 2문화층에서 5개가 수집되었다.

칼은 현무암 박편으로 만들어졌고 크기도 다양하여 길이 2.8~7.1cm, 폭 3.0~10.1cm, 두께 1.3~5.8cm에 해당하는 석기들이다. 석기의 날은 전부 날카로운 것들이며 손잡이부분은 박편의 표피부분을 이용하였거나 일부 다듬은 것이 있다.

침기는 현무암제로 모양은 화살촉처럼 침두형이다. 침기로 뚜렷하게 다듬은 것은 아니고 박편중에서 침기로 쓸 수 있는 형태의 것을 골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석기의 크기는 길이 5.2~7.6cm, 폭 3.2~3.7cm, 두께 1.2~2.6cm에 해당한다.

송곳은 현무암제로 좀 두터운 박편의 한쪽 끝을 일부 다듬어서 송곳의 끝부분을 준비하였다. 석기의 크기는 길이 7.4cm, 폭 6.4cm, 두께 3.0cm이다.

부리형석기는 현무암제로 박편의 한끝을 새의 부리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한 석기로 불완전한 송곳의 일종이다. 석기의 크기는 길이 7.3cm, 폭 6.0cm, 두께 2.2cm이다.

홈날은 현무암제로 두터운 박편의 한 끝에 홈을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석기의 크기는 길이 6.7cm, 폭 6.6~8.9cm, 두께 3.6~5.4cm이며, 석질은 별로 좋지

않다.

툽니날석기는 현무암제 박편으로 만들어졌다. 비교적 두터운 박편의 한끝을 손질하여 툽니날로 만든 석기이며, 크기는 길이 6.6cm, 폭 6.7cm, 두께 2.9cm이다⁷⁾.

<표 1> 층위별 석기분류

구분	대형석기		박편석기							기타(53점)			비고
	뽕족찌개	박편도끼	금개	칼	침기	송곳	부리형	흙날	툽니날	박편	돌날	돌핵	
수량 (105점)	3	4	26	12	2	1	1	2	1	49	2	2	동물 화석
제1문화층 (71점)	3	3	21	8	2	1	1	2	1				
제2문화층 (34점)		1	5	4									

*표는 논문에 실린 자료를 토대로 작성

석기의 석재는 제주도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다공질 현무암이다. 대부분의 석기는 깨진 면이나 날이 그대로 있는 것도 있으나 석기의 날과 표면이 무디어진 것도 보인다. 전체적인 석기의 특징은 주로 박편석기이고 큰 석기는 많지 않다. 그리고 석기의 제작수법에 대해서는 직접타격법에 의한 것으로 대형석기들은 충돌타격법이나 망치돌로 쳐서 박편을 떼어냈다고 보며 박편석기들은 석재에서 떼낸 박편들을 주로 이용하였고 큰 석기를 만들 때 떨어져 나온 것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으로 중기구석기로 판단하고 있다.

석재에 있어 모두가 도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공질 현무암이다. 다공질현무암으로 후대의 석기로서의 기능은 대부분 열매 혹은 곡물을 빻거나, 가는 갈돌이나 갈판과 같은 도구들로 많이 이용된다. 하지만 석부류, 석촉류, 공이류 등은 모두 조면암 계통의 석재를 사용하고 있다. 과연 부서지기 쉬운 다공질현무암이 찌개, 도끼 혹은 침기와 같은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7) 鄭永和, 韓國의 舊石器, 『韓國考古學報』19, 韓國考古學研究會 pp. 8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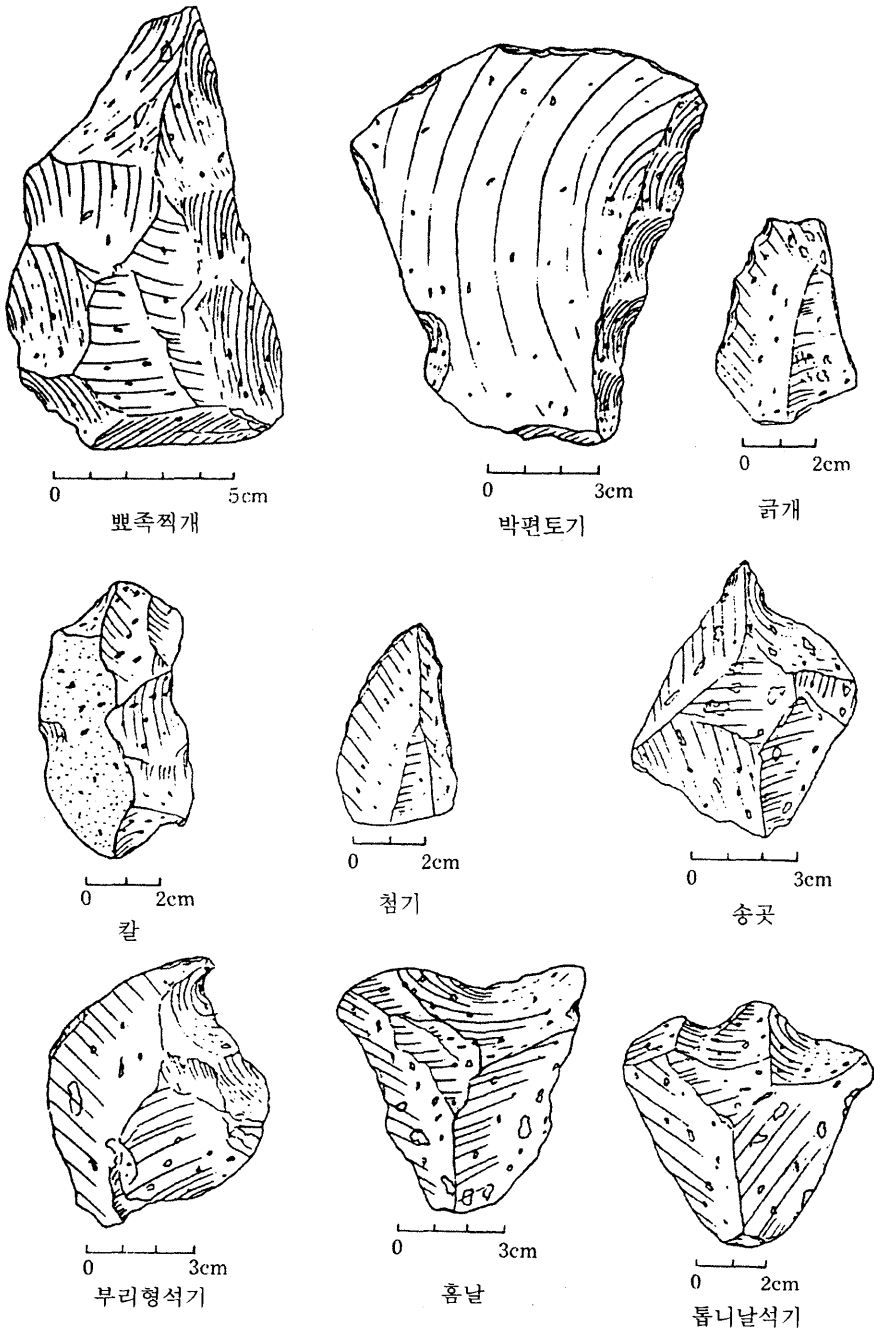


그림1) 빌레뭇 동굴유적 석기

② 동물화석

빌레못 동굴에서 나온 동물화석은 2목 2과 3속 3종으로 큰곰(Ursus arctos), 큰사슴(Cervus elaphus)과 노루(Capreolus capreolus)가 알려져 있다. 보고자에 의하면, 이들 동물화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⁸⁾.

濟州島 빌레못洞窟이 舊石器時代에 속하는 것이라고 처음 판단한 것도 이곳에서 발견된 動物化石들을 근거로 한 것이며 이들 化石 自體가 보여주는 相對年代와 석기들로 빌레못동굴을 우선 編年한 만큼 이 動物化石들은 대단히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 Brown bear(Ursus arctos)

이 化石들은 돌이 깔려 있는 부분과 제 2 층의 윗부분에서 齒牙 등과 함께 발견되었다. 또 이 化石이 보여주는 相代的 年代는 韓半島에서는 적어도 50만년 내지 1만년 전의 年代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이 갈색곰은 中國의 周口店에서 中期洪積世에 해당하는 Mindel II기의 지층에서 出土된 적이 있으며 Asia를 기반으로 빙하기에 많이 번식했던 동물이다. 韓半島에서는 氷河期가 끝날 무렵에 멸종되거나 아니면 그 대부분이 蒙古地方 또는 Alaska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것으로 믿어지는데 이것이 제주도에서 化石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 赤鹿(Red deer, Cervus elaphus)

이 化石은 第 3 紀末부터 4 紀初에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後期洪積世에 번성하던 동물이다. Asia에서는 中國과 일본, 우리나라에도 存在하던 동물로 갈색곰과 함께 出土된 것은 注目할 만한 일이다. 더우기 關節(tibia) 부분에 石刀 등으로 人工의 흔적이 나타나 있는 것은 당시의 先史人들이 이 동물을 사냥하여 식량으로 利用했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

- 노루(Roe deer, cervus capreolus)

Brown bear, Red deer 등과 함께 出土되는 化石으로 당시의 수렵생활을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증거물이다.

- 기타 동물화석

動物의 種을 가려내기 힘든 부분의 化石이 발견되었으며 대부분이 關節의 특징을 알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동물화석이 나타난 우리나라 유적은 다음과 같다⁹⁾.

8) 鄭永和 1984, 濟州道研究의 現況과 展望-考古學的 側面, 『耽羅文化』3, 耽羅文化研究所, pp. 13-29.

9) 朴英哲, 식물상과 동물상, 國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 (구석기문화와 신석기문화), 國사편찬위원회, 탐구당문화사, pp. 62-72.

Ursus arctos(큰곰) : 검은모루, 용곡1호 8·9지층, 용곡1호 10지층, 점말Ⅳ·Ⅵ지층, 금굴Ⅳ지층, 금굴Ⅱ리지층, 두루봉2굴

Cervus elaphus(큰사슴) : 동관진연대봉, 만달리, 검은모루, 용곡1호 8·9지층, 용곡1호 10지층, 용곡1호 11지층, 상시, 금굴Ⅳ지층, 금굴Ⅱ리지층, 두루봉2굴

Cervus Capreolus(노루) : 만달리, 용곡1호 8·9지층, 용곡1호 10지층, 용곡1호 11지층, 점말Ⅲ지층,

위의 유적중 3종이 모두 나타나는 유적은 용곡1호8·9지층, 금굴Ⅳ지층, 금굴Ⅱ리지층, 두루봉2굴 유적으로 4빙기 보다 앞선 시기(8만년 이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이 유적들의 다른 동물화석들은 절멸된 동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빌레못 동굴의 동물종들은 모두 현생종¹¹⁾인데, 이 점은 유적의 연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다¹²⁾.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동물화석 중 갈색곰은 지금도 절멸된 동물이 아닌 현생종이다. 그리고 이 곰으로 인해 마지막 빙하기간 동안에 제주도과 한반도와 의 연속설을 뒷받침 하고 있다. 사슴에 대한 언급에 있어 유럽의 예를 들어 후기 홍적세에 번성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중기 홍적세(10만년 전 ~ 1만년전)유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동물종이다.

그리고 사슴의 관절부위에 인공흔적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중요한 인간행위의 산물로 보고문에는 갈색곰에 대한 사진만이 실려 있을 뿐 다른 화석사진은 기재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에 어려움이 많다. 빌레못동굴 유적조사시 동행 조사한 박행신교수는 다른 논문¹³⁾에서 사슴의 치아 2개, 관절골 1개에 대해서 *Cervus nippon*(대륙사슴)으로 분류동정을 하고 인공흔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발굴조사된 탐라시대 유적인 광지패총¹⁴⁾, 김녕케네기동굴유적¹⁵⁾에서 나온 동물뼈 분류에 의하면 사슴은 모두

10) 국사편찬위원회, 1999, 『한국사』 2 (구석기문화와 신석기문화), 서울 탐구당문화사, pp. 54-72.

11) 자연보호중앙협의회·환경부, 1996, 『한국생물종목록』, pp. 3-4.

12) 裴基同, 1992, 舊石器時代, 『韓國先史考古學史』, 까치, pp. 29-30.

13) 朴行信, 1985, 濟州道産 哺乳類 概觀-化石으로 본 哺乳類와 現生哺乳類와의 比較考察, 『漢拏山天然保護區域學術調查報告書』, 濟州道, pp. 82-87.

14) 신태균 외, 1992, 광지패총 출토 동물뼈의 해부학적 연구, 『古文化』 40·41,

Cervus nippon(대륙사슴)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빌레못동굴의 사슴이 현생종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마도 Cervus elaphus(큰사슴)이 아니라 Cervus nippon(대륙사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2) 천지연유적

1975년 발견된 이 유적은 서귀포시 天地淵폭포 근처에서 玄武岩으로 된 굽개 1개, 돌날 3개, 剝片 2개, 그리고 흙날석기 1개 등 모두 7點을 發見하였다. 1976년, 1977년 尖器 1개, 돌날 4개, 박편 4개 등을 地表採集하였다¹⁶⁾.

(1) 위치 및 지질

遺蹟은 南濟州郡 西歸市 天池洞이며 천지연폭포가 있는 곳에서 南쪽으로 1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해발 15m에 해당한다. 地表調査를 통해서 遺物이 發見된 범위를 보면 東西의 길이가 4m, 南北은 10m가량이 된다. 天池淵遺蹟에서 발견된 後期舊石器 중에서 尖器 1개만이 지표하 20cm에서 發見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地表에서 수집되었다. 遺蹟의 地表에서 바로 앞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까지의 깊이를 고려하여 대략 1.5m 내외가 된다고 하였다.

유적은 바위그늘집자리로 현재 매표소에서 북쪽으로 5m가량 떨어져 있으며, 길이 6m, 폭 2.75m의 규모이며, 입구에서 안쪽까지는 3m정도 그늘이 형성되어 있는데, 입구는 폐쇄되어 있다¹⁷⁾.

이 지역은 제주도형성사에 있어 제1분출기에 형성된 조면암질 안산암지대로 침식작용에 의한 海蝕崖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 암벽 단애면은 20m가량 형성되어 있다. 제주도의 하천이 대부분 건천인데 비해 이곳은 항상 물이 흐르는 유수천이다¹⁸⁾.

pp. 31-42.

15) 신태균 외, 1992, 뼈의 동물별 분류, 『金寧케내기洞窟 遺蹟 發掘調査報告書』,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pp. 180-189.

16) 鄭永和, 1984, 濟州道研究의 現況과 展望-考古學的 側面, 『耽羅文化』3, 耽羅文化研究所, pp. 22-29.

17) 西歸浦市, 2001, 『西歸浦市誌』(상권), 정아기획, pp. 328-329.

18) 西歸浦市, 2001, 『西歸浦市誌』(상권), 정아기획, pp. 122-140.

(2) 石 器

天池淵遺蹟에서 發見된 舊石器의 種類는 3가지로, 典型的인 刮개(Scraper, Raclair) 1점, 尖器(Point) 1점, 홈날석기(Encoche, Notch) 1점이 있고 그 밖에 典型的인 돌날 8점, 剝片 6점 등이 發見되었다.

刮개는 玄武岩으로 石器表面에 녹(Patina)이 나 있다. 刮개로 만들기 전에 剝片을 미리 준비하였는데 박편의 앞부분(Partie Proximaie)과 끝부분(Partie distaie)은 현재 부러진 狀態로 있고 剝片의 軸과 石器의 軸이 일치하고 있는데, 볼록 양날刮개(Raclair double biconvexe)로 여기고 있다. 양쪽 볼록날의 길이는 각각 왼쪽의 것이 4.5cm, 오른쪽 것이 4.4cm로 거의 같은 길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왼쪽날은 石器의 軸과 거의 平行을 이루고 오른쪽날은 石器의 軸과 예각을 이루도록 만들어졌다.

이 石器의 最大의 길이는 4.52cm, 폭은 5.80cm, 두께는 1.23cm이다. 가파른 다듬기(Retouch abrupte)나 덜 가파른 다듬기는 後期舊石器時代에 石器의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이용되는 技術이다. 石器의 양쪽날에는 뚜렷한 使用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첨기는 玄武岩으로 만들었으며 石器表面에는 赤褐色의 녹(Patina)이 껴서 古色이 뚜렷하다. 石器의 測定價는 最大 길이가 6.74cm, 폭이 1.78cm, 두께가 1.96cm이다. 尖器의 斷面은 삼각형이며 製作技術은 自然的인 剝離面으로 形成되어 兩面을 이루고 있고 尖器의 아랫부분은 이 石器의 유일한 剝離面으로 第3面을 이루고 있다. 우선 形態學的으로 보아도 尖器의 斷面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드물다. 돌날의 첨기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다.

홈날석기는 현무암을 사용하였으며 윗부분은 아랫부분보다 녹이 덜 나서 회색을 띠고 있으나 아랫부분은 옅은 갈색을 나타내고 있다. 석기의 윗부분은 발견 당시 엷어진 채 있었기 때문에 녹이 덜 낀 걸로 생각된다. 최대의 길이가 2.34cm, 폭이 1.60cm, 두께가 0.43cm로 작은 형태의 석기이다. 작은 박편에 만들어졌는데 박편의 축과 석기의 축은 90°를 이루고 있으며 홈날 자체는 석기의 왼쪽에 만들어졌다.

돌날은 간접타석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뚜렷하며 형태도 전형적이다. 돌날은 모두 8개가 수집되었는데 부러진 1개를 제외하고는 크기가 제일 큰 것이 5.76cm이고 제일 작은 것이 2.53cm로서 나머지는 이 사이에 속하는 것들이다. 8

개의 돌날 중 사용흔적이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석재는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 돌날의 표면에는 갈색의 녹이 조금씩 끼어 있다. 박편은 모두 6점이 채집되었는데 제일 큰 것은 길이가 5.80cm, 폭이 3.18cm, 두께가 0.85cm이고 제일 작은 것은 길이가 2.39cm, 폭이 1.98cm, 두께가 0.72cm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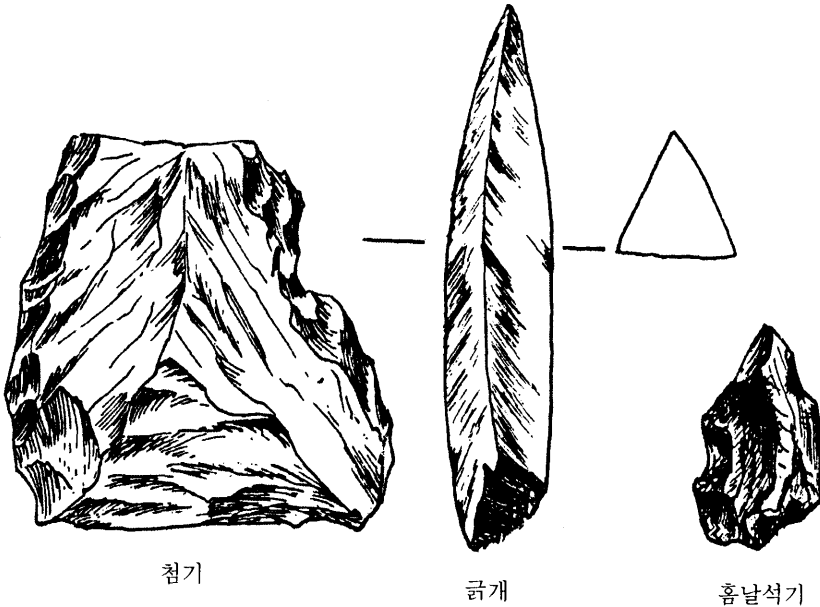


그림2) 천지연유적 석기

石器의 特徵과 함께 天池淵遺蹟에서 발견된 舊石器遺物이 舊石器後期에 屬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석기와 돌날, 박편의 양상으로 보아 단현리유적보다 조금 앞서는 즉, 후기구석기 중에서도 중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천지연참기와 같은 독특한 석기를 포함하고 있는 후기구석기시대의 중기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석기의 석재는 현무암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곳의 암석은 대부분 조면암질 안산암으로 일반 빌레못동굴유적의 석재인 다공질, 현무암과는 다른 석질로서 비교적 치밀하고 강도도 높다. 아마도 천지연유적의 석기는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면암질 안산암일 것이다. 그리고 지표하에서 출토된 참기가 원래의 문화층에서 출토된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데, 경작지에서 지표하 20cm에서

수습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제동된 표토층일 가능성을 배재할 수는 없다. 보고 문에는 굽개, 첨기, 흙날석기 3점의 실측도가 실려 있다. 첨기는 2차가공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천지연첨기로 명명하였는데, 과연 뚜렷한 흔적이 없는 것을 첨기로 여겨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아마도 암벽단애면에서 낙석되어 부서진 것 중의 일부일 가능성을 배재하지는 못한다.

IV. 구석기유적의 부존 가능성

고산리유적과 김녕리유적의 존재는 최소한 후기구석기 유적의 부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이긴 하지만 석기전통이 구석기적인 요소 즉, 대부분의 석기가 후기구석기 제작기법인 가압박리에 의한 타제수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¹⁹⁾. 일본의 큐슈지방의 경우 조몬시대(신석기시대) 초창기 유적 대부분의 석기는 타제석기전통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²⁰⁾.

지질학적으로도 마지막 빙하기 동안 해수면의 변동폭은 홀로세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적어도 지금보다 140m가량 내려간 적도 있었다²¹⁾. 이정도면 제주, 중국, 한반도, 일본은 하나의 대륙으로 변한다. 따라서 동물이나 인류가 쉽게 제주에 왔었을 것이다. 그 증거물이 빌레못 동굴의 동물화석이다. 앞서에서도 일부 언급했지만 50만년전에서 30만년전까지 제주도 화산이 최성기였다고 한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2만5천년까지 기생화산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후기 플라이스토세 후반부에는 사람이 살기에 적당했을 것이며, 고산리유적도 플라이스토세에서 홀로세로 변하는 자연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후기 구석기시대 인류의 제주도 점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화산재 속에 유적이 묻혀 있을 가능성을 배재하지 못한다. 앞으로 제주도와 가까운 큐슈지방의 예에서처럼 구석기시대(세석인문화)에서 승문초창기로의 이행이 급격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연계되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남해안지방에서 후기구석기유적이 증가 추

19) 高才元, 1996, 高山里遺蹟 出土 打製石器의 形態的 分析, 『濟州島史研究』 5, 濟州島史研究會, pp. 84-105.

20) 木崎康弘, 2000, 舊石器時代(九州), 『考古學ジャーナル 460』, pp. 21-25.

21) 황상일, 2001, 우리나라 현세 해수면 변동, 『한국의 제4기 환경』,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125-126.

세에 있으며, 신석기시대에서의 이행과정을 밝히려는 시도가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도에 있어서도 고산리유적을 근거로 하여 구석기시대의 유적의 부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겠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제주도구석기에 대한 기존 보고문과 문제점들을 재검토해 보았다.

제주도구석기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정식 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아 유적과 유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다.

빌레못 동굴유적은 유적의 형성과정, 석기의 상세한 기재, 암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동물화석에 대한 분류 등 재조사를 실시하여 구석기유적으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천지연유적은 출토지점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어 실재 바위그늘집자리유적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빌레못동굴유적에서 보이는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재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서 구석기 유적의 가능성은 고산리유적을 근거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제4기층의 존재 여부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